82

◇심장점액종의 임상적 고찰

오상기, 장원채, 나국주, 김상형

전남대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심장의 원발성 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이나 약 2/3이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심장점액종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50%, 그리고 양성종양의 약 75%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장점액종의 진단과 치료에 참고하고자 수술적 근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

방법 : 1981년부터 1998년 6월까지 심장점액종으로 수술적 근치술을 시행한 27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의 형태, 임상증상, 수술방법 그리고 수술성적 등을 임상분석하였다. 대상 례의 평균 나이는 45.70±16.29세 였으며 여자가 19례로 많았다.

결과 : 24례에서 심방점액종이 좌심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례에서 양심방에, 그리고 1례에서 우심방에 위치하고 있었다.수술은 모든 례에서 종양의 부착부위까지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14례에서 patch를 이용하여 중격봉합술을 시행하였고 4례에서 승모판막 치환술을 실시하였다. 수술 및 병원 사망은 없었으며 술 후 종양분절에 의한 색전증의 증상을 보인 례도 없었으나 1례에서 수술 후 20개월째 재발하였다

결론 : 심장 점액종의 진단시 속히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종양의 분절에 의한 색전증의 예방이 중요하고 절제시 재발 및 악성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절제를 요한다. 특히 심장점액종은 재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 후 계속적인 추적관찰을 요하리라 사료된다.

책임저자:김상형(전남대학교) 발표자:오상기(전남대병원)